

(축)

(창)

(간)

우리 것을 찾아 배우자

조 기 흥

전 대한 가정학회 회장



글 쓴 이

해방과 더불어 이성을 잃어 버릴만큼 기뻐던 환희가 지나가고 미소 공동 위원회는 또 다시 우리 겨레에 흑운을 던져 주었다. 따라서 알타 협정은 삼팔선을 저희들 마음대로 떡 썰듯이 짝 갈라 놓은 대가를 우리 민족만이 입지 않았는가? 나는 다시금 그 옛 시간으로 돌아간다.

왜정 사십 년 우리 고유한 문화 생활은 양반 계급에만 국한되었었으며, 보급되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었지만 발바닥으로 걷는 인도나 맨손으로 집어 먹는 열대지방의 야만생활에 비하고 싶지 않은 민족문화를 가진 우리 국가를 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다. 그러나 왜국정치는 우리 겨레의 입을 봉하여 말을 못

하게 하였고 글을 못 쓰게 하였다.

왜말로 가르치는 우리 생활 양식은 어색하였지만, 우리 음식, 우리 의복, 우리 예절은 왜말일 망정, 우리 정신으로 서로 통하며 서로 호르는 민족혼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기억 한다. 김치 담그는 시험을 「기미치」라고 일어로 써 놓고, 항아리를 억지로 가지고 오게 하고, 60명의 김치 담그기 시험을 보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기뻐하던 기억이 새롭다.

가슴 속속드러 혈맥이 통하는 우리 민족 혼은 그들이 빼앗지를 못 하였다. 그들은 말과 글을 빼앗었지만 참아 옷은 못 빼앗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저희 나라 옷이 우리 옷만 못한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왜정하에서 우리 생활을 가지려고 애쓰던 그 마음이 바로 해방과 더불어 터져 나온 것이 가정학회로 뭉친 것이다.

어색한 가사 교과서를 가지고, 또 일본 교육을 받은 가사 교사들이 모인 뭉침이다. 서로가 우리 것을 다시 찾아 배우자 이것이 다 약 60여 명의 회원이 꾀도 충실이 결석생도 드물게 모여서 지나던 초창기를 새롭게 기억시켜 준다. 우리는 좌 우익이 싸우던 말던 꾀도 단합했고, 열정을 기울인 일, 기뻐던 추억도 다시 어제같은 느낌을 준다. 서로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교환도 하고, 강사의 도움도 받고, 서로가 **알려고 다시 찾으려고** 애

쓰던 시절이었다. 동덕 고녀에서 가사 선생님의 속성 고치장 담그기 연구 발표도 어제 같이 기억 되고, 숙명 여고의 양재 교육 연구회도, 성신 여고의 예법 연구회도 커다란 기억이다.

나는 가정학회를 삼 단계로 나눈다면, 초대 연구 발표 시대라고 부르고 싶고, 전란 이후 수복 후의 학회는 국제 진출로서 외국에 알려져 있는 힘을 느끼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회원이 많이 늘어 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따라서 회장의 국제적인 진출이 큰 것과 아울러 공적을 찬양하여 마지 않는다. 지금이 곧 제 삼대 최 회장을 마지했고 셋째 단계로 들어서 내용 충실로 더욱 연구 진보 해 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학보를 신문으로부터 시작하자, 여러가지 고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언젠가 6·25가 나기 전에 가정 학보를 책으로 엮어 보자고 의논 할 때도, 가정 주부를 상대로 하자는 논의와 학구적인 학보로 어디까지나 밀고 나가자는 이기열씨 발언이 지금도 내 머리에 생생하다. 초창기 때부터 학보를 하고자 몇 번 모였고, 몇 번 궁리 하던 것이 이제 바로 발간하게 되었으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다만 현 회장과 간부 여러분의 노력의 결정으로 알고 축하하여 마지 않는다.

세계는 좁아졌고 우리 한국 내는 빠스와 찻차가 곳곳이 산속까지 들어 가기 때문에 산골짜기도 교통이 완화된에 따라 산골 색씨도 도시 아씨와 같은 모양의 차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잡지도 서책도 같은 것이 운반될 것을 알고, 또한 가정학보도 역시 경향을 막론하고 다 같이 보내게 될 것을 축복한다. 서로 서로 의사 표시와 교환이 원활할 것을 상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느 국민보다도, 재주 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국민이다. 우리만이 문화가 뒤 늦은 생활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원조는 우리 생활을 보다 더 잘 살 줄 알게 깨달음을 주었다. 생의 즐거움을 또한 방법을 던져 주었다. 흡수하는 양식도 급속도로 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 질 것을 나는 자부한다. 가정 학회가 따라서 그 선봉의 역할을 할 것이요, 지도적 책임을 담당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간부 제위가 심혈을 기울여 정성 어리게 잡고 나가는 결정의 출발도 학보로부터 더욱 발전할 것이다.

많은 희생과 노력이 숨어 있음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아마도 우리 겨레의 생활 개선이 후생 주택이 아름답게 나타나듯 눈에 떨 만큼 나타날 것이요, 항상 남성의 협력과 관심이 적었던 것을 통탄하여 왔지만, 이제는 제법 남성들도 관심이 커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과 같이 영롱한 겨레의 생활도 남들과 같이 되어 지기를 바란다. 학회 초창기부터 오늘을 헤어 본다면 아마도 해방 익년 가을 같이 기억 되나, 작고 하신 유영춘씨와 정희로씨 박유분씨 한점남씨 현병진씨 박용경씨 표경조씨로 의지가 합하여 업사리 마련되었던 가정학회 발기 당시와 현격한 발전을 가지고 지금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6·25가 중단을 시켜 놓았으므로 서류 일체의 역사가 남아 있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지사 보다 현재의 발전이 더욱 빛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 날의 발전을 상상하고 창간호의 기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임원 여러분과 최회장의 수고를 찬양하는 바이다.